

폭력 남편과의 이혼 성립 전에 새 연인의 아이가 생겼을 때...

★★ 이혼 후의 300일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가정 내 폭력, 그리고 이혼...
새 연인과의 사이에 아이가 생겼을 때
이 아이는 폭력남편의 호적에?!



일본의 민법은 이혼한 후 여성은 6개월 간은 재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여성이 이혼한 후 금방 결혼 해 얼마 있지 않아 아기가 태어났을 경우 이 아기의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인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편, 같은 일본 민법 중에는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이혼하기 전 남편의 아이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률은 최근 뉴스 등에서 크게 다루어지고 있어 들은 적이 있는 분들도 많겠지요. 왜 이 법률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일본에서도 이혼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편의 가정 내 폭력(DV)이 원인이 된 이혼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의 DV에 고민하던 A 씨라는 여성이 남편 B 씨로부터 도망쳐 나와 겨우 이혼수속을 밟아 6개월 동안 기다려 다른 남성 C 씨와 재혼했다고 합시다.

A 씨는 3년 전에 남편으로부터 도망은 쳤지만 무서워서 남편에게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수속이 된 것도 최근에 되어서 입니다. 그 사이에 다른 남성 C 씨와 친밀하게 되어 이혼했을 때는 C 씨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혼이 1월 말이라고 하면 A 씨와 C 씨가 결혼 할 수 있는 것은 7월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그 전입니다. 아이는 폭력남편 B 씨의 아이로써 호적에 기재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싫어서 출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이는 공식적으로는 신고되어 있지 않은 「호적이 없는 아이」가 되어 버립니다.

같은 패턴으로 여성 A 씨가 외국적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태어나는 아이로서는 일본에서 살기 때문에 일본국적을 가지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본국적을 딸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가정재판소에서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정합니다. 전 남편이 협력해 주지 않는다면 「적출여부에 관한 소송」을 합니다. 또는 임신 전부터 남편과 별거하고 있었던 경우는 엄마 측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 부 존재 확인의 조정 혹은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A 씨와 C 씨가 결혼해서 C 씨가 아이를 인지하면 아이는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이는 이중국적의 상태입니다. 22세가 될 때까지 국적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 선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부모가 대리인으로서 국적을 선택할 경우도 있습니다. A 씨와 C 씨가 결혼했을 경우는 그래도 괜찮지만 결혼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겠지요. C 씨가 태어난 아이를 인지해 주지 않을 경우는 A 씨는 아이를 대리해서 C 씨에 대해 「친자확인 인지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지하면 일본국적취득에 대한 수속이 가능해 집니다.
(해설·마에다 미호)

www.ficcc.jp/foreign/

● 「인포메이션 후지미노」의 과월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도움이 됩니다!★
「평성 22년도 교통재해공제회원모집」

이번 달은 공제위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공제는 회원들이 회비를 서로 내어 교통사고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위문금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유효기간은 1 년간 입니다만 회비는 일반 900 엔 중학생 이하는 500 엔 입니다. 불행하게도 교통사고가 나면 다음과 같이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 ① 사망했을 때 1 2 0 만엔
 - ② 부상 시·1 입원 1 일에 대해 2 0 0 0 엔
통원·왕진 1 일에 대해 1 0 0 0 엔
 - ③ 부상 시·2 (사고증명서를 받을 수 없을 때)
입원·통원·왕진 1 일에 대해 1 0 0 0 엔
- 외국적 시민이어도 외국인등록만 되어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후지미시, 후지미노시, 미요시마치 이외에서는 지역에 따라 가입할 수 없는 지역도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시야쿠쇼나 마치야쿠바 또는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2월은 절분
「콩뿌리기」(마메마키)를 했습니다.



2 월 3 일은 일본의 풍습인 「콩뿌리기」 날입니다.

센터의 일본어교실에서도 콩뿌리기를 했습니다.

공부하러 온 외국적시민

여러분들이 각각 면을 쓰고 붉은 콩을 먹으며 1년 간의 무병무사를 기원했습니다.

이 콩뿌리기는 일본 전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콩에 머물고 있는 곡물의 영의 힘으로 가지각색의 불행을 초래하는 나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콩을 뿌릴 때는 바깥 쪽을 향해 「귀신은 바깥」, 집 안을 향해 「복은 안으로」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앞 부분에 뿌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콩을 뿌린 후는 나이만큼이나, 나이보다 한 알 많게 콩을 먹으며 1년간의 무사함을 기원합니다.

외국적시민의 눈·신기한 일본인의 풍습

간다 아유무

이번은 「일본인의 감정표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에서는 3월은 「헤어짐」의 계절이라고 불리워 집니다. 그것은 많은 학교에서는 반이 나뉘어 진다는가 진급이나 졸업식이 있으며 또한 회사에서도 인사이드 등이 있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인은 감정표현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사무라이 시대의 일본은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것이 현재에도 남아 있는 것인지 일본인은 타인의 눈을 의식하기도 하고, 연령이나 직분에 따른 상하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잘못하기 때문에 솔직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릴 지 모릅니다.

그러나 졸업이나 인사이드 등으로 떠나는 사람을 위해 종종 행해지고 있는 송별회에 「부레이코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분이나 연령을 넘어 송별할 때는 조금은 실례되는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보통은 엄하게 보이는 일본인의 상하 관계도 이런 자리에서는 도가 지나쳐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신뢰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일본인을 아는 지름길? 마을의 천연온천

일본인은 온천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조몬시대부터 유적에서도 입증한 흔적이 발견되고 있는 것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방법으로 가족과 함께 온천탐험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근처에도 천연온천을 매물로 하는 슈퍼온천(천연온천)이 많이 있습니다. 요금은 1일 동안 놀아도 600~700엔 정도 입니다.

- 목욕의 왕(시키시)·니자온천(니자시)·오에도하즈가리노유(카와고에)·유라쿠노사토(카와고에)·마나이노유(후지미시)
- 무사시노온천사이유키(토코로자와시)
- 마키바노유(이루마시)
- 후루사토노유(토코로자와시)등 가까운 곳에 온천이 많이 있습니다. 새싹을 보면서 즐기는 목욕은 최고로 기분이 좋겠지요.

www.ficec.jp/living/

●6 개 국어 판의 생활가이드를 게재하고 있습니다.